

# 고려 말 신흥사대부의 개인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 (I)

- 아동기 개념화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Child Rearing in the High Officials' Collection of Works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Focusing on the Conception of Children and their Activities in Everyday Lives (I)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 신양재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 Shin Yangjai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문집에 나타난 아동 관련 내용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ions of children and their activities in everyday lives during the lat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The historical method was used and the materials for analysis were the literatures written from the late thirteenth century to the fourteenth century in the Goryeo Dynasty, such as 'the Ikjaijip'(익재집), 'Mokeunjip'(목은집), 'Yangchonjip'(양촌집).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a child was that children were inherently good with the true character which was given from natural laws and that each child was born with different natural endowment. Also, the notions on child development were that the infancy was a pure and perfect period which was not contaminated by temperament and worldly desires, instead of the developmental model that childhood is as a stage and the child must develop from the state of incompetence to the state of maturity. In addition, there were the principles for development that were keeping the innate ideal state and fostering it from the earliest time as infants were born with innate ideal state or ability. The concepts of children's characteristics were considered that they were inclined to make much noise and movement, but to have the plain and straightforward expressions and consistency in their feelings and everyday activities. And intelligent abilities for learning were often considered as desirable traits. In everyday lives, children did the household

chores such as caring for livestock and silkworms or embroidering. Among their games were exploring activities, free plays using natural materials, pretend-plays, bamboo-stilts riding, and Yutnori.

**주제어(Key Words):** 아동에 대한 개념화(the conception of children) 아동의 일상생활상(children's activities of everyday life)

## 1. 서론

Cole(1998: 12-14)은 Gesell류의 생물학적 성숙 관점 (biological-maturation), Skinner류의 환경적-학습 관점(environmental-learning), Piaget류의 상호작용적 관점(interactional) 의 세 입장이 아동발달 연구를 주도해왔으나, 이들은 모두 환경적 측면을 문화나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이론화에서는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 네 번째 이론적 틀로서 문화적-맥락 관점(cultural-context)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문화적 맥락 입장은 세 이론과 달리 생물 요인과 환경 요인이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제 3 요인인 문화에 의해서 그 상호작용이 증대된다고 본다. 특히 그 증대 요인인 문화를 역사적으로 특정화된 특유의 환경 특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Super와 Harkness(1998)의 발달적 니치(developmental niche)의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적 니치는, 특히 아동의 미시환경에 대한 문화적 조절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양육자의 심리, 아동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문화적으로 조절된 아동 양육 관습 등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육자의 심리를 Harkness와 Super(1992)는 부모의 민속이론(parental ethnotheory)라 하여, 이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작용하여 특정한 발달환경을 이룬다고 보았다. 이 민속이론은 D' Andrade와 Strauss(1992)의 문화모형(cultural models)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있어 실재에 대한 해석 틀인 동시에 동기로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Lightfoot와 Valsiner(1992)는 문화와 부모의 신념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 문화는 다양하고 이질적 실체로서 개인 문화와 집단 문화로 구별하여 그 층을 달리 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부모신념은 집단문화 내에서 구성되고 내면화되는 심리적 기능이지만, 집단문화 내에 존재하는 신념체계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문화에서 제공한 재료를 개인 자신

이 구성하는 신념체계로서 개인 고유의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부모의 신념 체계는 귀납적 지식과 연역적 지식의 결합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귀납적 지식은 자녀 양육 경험으로부터 나오고, 연역적 지식은 집단문화 내에 존재하는 의미나 가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지식이다. 또한 Lightfoot와 Valsiner(1992)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시기를 달리하여 아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에는 서로 불일치하는 개념들이 있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개념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갈 때 이전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인 하위체계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즉 특정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것은 집단문화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강조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대한 신념체계에서 인식의 변화는 인식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관심이나 강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로 미국의 50년대 아동 인식에 대한 연구를 한 Wolfenstein(1953)의 경우를 들어 볼 수 있다. 그녀는 아동양육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50년대 미국의 양육 특징을 '재미의 도덕'(fun morality)이라고 표현했다. 즉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청교도적 가치에 의해서 즐거운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던 사회 인식이 점차로 즐거움을 좋은 것으로 보는 인식으로 변화하면서, 아동의 욕구이나 놀이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 위험한 충동이 아닌 탐색 욕구로, 놀이는 금지해야 할 것이 아닌 운동발달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아동 양육의 모든 면에서 재미를 중요시 여기면서 의무시화까지 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20년대와 30년대 신문 기사를 분석한 한 연구(신영재, 김영주, 1992)에 따르면, 당시의 아동양육관련 기사가 서구식의 아동 양육, 즉 아동이 중심이 되는 양육을 보급하여 생활화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보면 이 시기에 식자층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대

한 강조점이 이전의 전통적 양육 개념에서 서구적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 Lightfoot와 Valsiner(1992)의 주장대로, 아동양육 인식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지배적인 이념이 그전의 것을 소멸시키거나 대체해버리는 것이 아닌 관심과 강조의 변화의 차이일 뿐으로 모순적으로 함께 공존해 간다고 보면, 과거 역사상에 있었던 아동에 대한 개념과 양육 이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국 전통사회에 대한 기존 연구(김영옥, 백혜리, 2000; 문미옥, 류철신, 2000; 백혜리, 1999, 2000, 2001; 신양재, 1994c, 1995a, 1995b, 2004a, 2004b; 우영희, 1989; 유점숙, 1987, 1989, 1991, 1992, 1995; 이정덕, 송순, 1993)들은 대개 그 대상 시기가 조선시대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신양재, 1994a, 1994b, 1995c)는 소수로 아직 미비하다 하겠다. 또한 삼국시대(신양재, 1994b)나 고려시대(신양재, 1994a)에 관한 연구가 주로 왕조사를 중심으로 기술된 문헌들로 이루어져서, 아동 양육과 같은 일상생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태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른 종류의 사료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여 다른 연구(신양재, 1995c)에서 개인 문집을 분석하였다. 문집에는 시(詩)뿐만 아니라 논(論), 변(辯), 서(序), 발(跋), 진(秦), 의(議), 서(書), 설(說), 칙령(勅令), 비문(碑文), 지(誌), 잡문(雜文), 기(記) 등의 글이 실려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서술형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당시의 상세한 생활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유용하다(신양재, 1995c)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신양재, 1995c)는 분석문헌이 몽고간섭 이전에 저술된 개인문집이어서 좀더 많은 자료의 보충이 필요하였다. 특히 몽고의 지배 동안 麗와 元은 국경의 제한이 없으리만큼 왕래가 빈번하였고 이에 따라 사상과 학문 등 정신적 문화도 상호교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 대표적 예로 성리학<sup>2)</sup>이 고려에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게 되었다(김상기, 1985: 563). 고려는 원래 불교를 국교로 삼고 유교는 통치 전거로서 삼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생활풍속은 불교적이어서 유교의 기능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성리학이 수입되어 연구 보급됨에 따라서 불교에 대한 이론적 공박이 시작되었고 종교적인 면과 풍속적인 면에

서도 혁신을 추구하게 되었다(배종호, 1988: 201). 수용 초기의 성리학은 조선조의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 측면보다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윤리·도덕 실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윤리적 자기완성을 목표로 하는 덕이 있는 사람에 의한 교화를 통한 이상정치 구현의 실천적 성격을 지녔다(변동명, 1995: 64-92). 따라서 성리학이 수입되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이념을 변화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론적 근거가 성리학에서 제공되었고 이것은 몽고간섭 이후의 고려 사회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3세기말에서 14세기에 저술된 개인 문집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 시기의 분석을 통해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정치, 사회적 변화가 일상생활수준의 아동 양육에 어떻게 반영되어 전개되어 나타나는지를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왕조가 교체되는 과도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조선 사회를 좀더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아동 양육의 전통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개인문집에 관한 전 연구(신양재, 1995c)에 이어, 고려 말 개인문집

- 1) 이들은 문체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주장하는 글을 論, 언행의 시비 혹은 진위를 논하여 결단하는 글인 辯, 서문을 序, 발문을 跋, 자신의 의견을 임금에게 아뢰는 글 奏, 논의 하여 사의(事宜)를 정하는 글 議, 의견을 상신하는 글을 書, 사물에 대한 의리(義理)를 풀어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형식의 글 說,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인 勅令, 비석에 쓰인 글을 碑文, 사적(史跡)인 기사(記事)를 기록한 글인 誌, 일정한 체계 없이 여러 가지 글을 雜文, 사실대로 적은 글을 記라 하는데, 이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을 구해 볼 수 있다.
- 2) 원래 성리학은 북송(北宋)의 주돈이(周惇頤)로부터 시작되어 남송(南宋)의 주희(朱熹)에 이르러 대성하였는데, 원의 세조(世祖)가 남송을 평정함에 따라 성리학이 북방으로 전파되었던 무렵에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이 원에 건너가 그것을 국내에 전해 오게 되었고, 충선왕(忠宣王)이 연경에 만권당을 열어 원의 碩儒 巨匠들과 이계현, 권한공 등이 문학과 학문을 교류하였고, 뒤이어 이곡(李穀), 이색(梨穡) 부자가 각각 원의 과거에 급제하고 원에서 留任하는 동안 중국의 문인과 학자와 교류하며 성리학을 심오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김상기, 1985: 563-564).

에 나타난 아동 양육을 아동에 대한 개념화, 아동일상생활, 아동양육의 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먼저 아동에 대한 개념화와 아동의 일상생활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아동에 대한 개념화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러한 인식은 일상의 양육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시발(始發)이 됨으로서 양육행동 이해에 근본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발달적 니체(developmental niche)의 하위 체계인 양육자의 심리체계로서 사람들이 아동양육에 대해 갖는 민속이론(etnnotheory)의 근간을 이룬다 하겠다. 여기서는 아동 본성에 대한 개념, 아동 발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동의 일반 특성과 이상적 특성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규명은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일상생활세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회화과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아동이 수행하는 가내과업(Goodnow, 1988)과 놀이활동(Schwartzman, 1978)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아동의 일상생활로서 아동의 가내과업과 놀이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의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고려 말 아동에 대한 개념화는 어떠한가? 둘째, 고려 말 아동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의 아동양육을 고찰하기 위해서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 저술된 개인 문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적 맥락 이해에서 내부자 관점을 우선시 하고(김영찬, 1982), 가급적이면 실제로 행해진 행태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우리 선조가 저술한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몽고간섭 이전 시기의 문집에 대한 고찰(신양재, 1995c)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13세기 말과 14세기의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저술된 이제현(李齊賢)의 익재집(益齋集),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권근(權近)의 양촌집(陽村集)을 대상 문헌으로 하였다. 이제현(1287-1367)은 초기에 성리학의 수용을 주도하였던 안향, 백이정, 권부 등의 선구자들을

받들어 흥학운동과 같은 보급노력에 의해서 최해, 안축 등과 함께 성리학의 기반을 구축한 초기 수용자에 속하는 인물이다(변동명, 1995: 62). 또한 이색(1328-1396)은 이제현의 문하에서 여말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당시의 학계의 대부분이 그의 제자이거나 또는 종유(從遊)의 처지에서 직접 간접적인 영향으로 배출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당시의 성리학계의 형성은 이제현에 이어 이색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윤사순, 1987, 117). 또한 권근(1352-1409)은 조선초 성리학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색의 문하에서 여말과 선초에 걸쳐 활약하여 여말의 성리학을 선초의 성리학으로 계승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조선에서 성리학의 관학화(官學化)라는 여건 변화 속에서 고려조의 성리학의 전통 위에서 성리학의 순수한 이론적 탐구에 공헌함으로써 선초 성리학 연구의 방향을 잡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윤사순, 1987: 129-130). 따라서 이 세 사람은 여말에서 선초에 걸쳐 학계와 학풍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그들의 문집을 대상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이제현의 익재집(益齋集)은 연보(年譜), 익재난고(益齋亂藁), 습유(拾遺), 역옹패설(穢翁稗說) 등과 서(序), 발(跋), 중간발(重刊跋) 및 묘문(墓文) 등이 집성되어 있는 문집이다. 특히 익재난고는 10권 4책의 시문집(詩文集)인데, 권1-4에 시, 권5에 서(序), 권6에 서(書), 권7에는 비명(碑銘), 권8에는 표(表), 권9에는 상하로 나누어 상에는 세가(世家), 하에는 사찬(史贊)과 서(序), 책문, 논, 송, 권10에는 장단구(長短句)가 실려 있으며, 역옹패설과 함께 우리나라 한문학사상 귀중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또한 역옹패설은 패관문학(稗官文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익재가 56세 때(충혜왕 3년)에 칩거하면서 저술한 것으로, 체재는 전·후집으로 나누어 전집(前集)에는 1권 17화(話), 2권에 43화, 합 60화로서, 서(序), 역사, 인물일화, 골계(滑稽)등이 실려 있다. 후집(後集)은 1권에 28화, 2권에 25화, 합 53화로서, 서(序)와 시문이 주로 실려 있다(민족문화추진회편, 1979: 11). 이 역옹패설은 「파한집」과 「보한집」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당대의 현실과 문학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성균관 대학교 소장 노림제본을 영인한 것으로 자료로 하

여 갑술본(순조 14, 1814)을 대본으로 하여 국역한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의 「익재집」을 참고로 대조하면서 분석하였다

이색의 목은집(牧隱集)은 시문과 산문을 구별하여 편집되어 있는데, 시고(詩藁)는 권 1-35까지로 시 팔천여 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재(題材)가 폭넓어서 당시 행해지던 풍속을 제재로 잡아 쓴 내용도 있어 생활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데(민족문화추진회 편, 1979: 18), 문학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의 사회를 알아보는 사료로서도 귀중하다. 문고(文藁)는 권 1-6에는 기(記) 75편, 권 7-9는 서(序) 39편, 권 10은 설(說) 21편, 권 11-13은 표(表) 22편, 찬(贊) 11편, 잠(箴), 전(箋), 변(辨), 작(作), 후(後), 발(跋) 등 33편, 권 14-20은 비(碑), 명(銘), 전(傳) 등 35편이 수록되어 있다. 문고는 당시 이색이 교유한 지식인 과 정치가들의 전기적 자료가 대부분으로 정치, 사회에 관한 원천적 사료로서 귀중한데, 「고려사」의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었으며, 불교에서 유교로 전향되는 과도기적 일면을 보여준다(한국민족문화대사전 8, 1991: 42-43)고 한다. 1626(인조 4년)에 중간(重刊)한 것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 3·4·5집으로 영인한 것을 자료로 하였고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2003)에서 국역한 「목은집」을 참고로 하여 대조하면서 분석하였다.

권근의 양촌집(陽村集)은 권 1-10에 시 980수, 권 11-14에 기(記) 45편, 권 15-20에 서 66편, 권 21에 설(說) 13편, 전(傳) 3편, 권 22에 발어(跋語) 21편, 권 23에 명(銘) 7편, 찬(贊) 8수, 제문, 13편, 권 24에 사대표전(事大表箋) 21편, 본조표전(本朝表箋) 16편, 권 25, 26에 사직전(辭職箋) 1편 차자(筭子) 3편, 계본(啓本) 1수, 권 27, 28에 소어(疏語) 23편, 권 29에 청사(靑詞) 14수, 권 30에 교서(敎書) 9편, 권 31, 32에 상서(上書) 12편, 권 33에 잡저 11편, 권 34에 동국사략론(東國史略論), 권 35에 동현사략(東賢事略), 권 36-38에 비명, 권 39, 40에 묘지 5편,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동국사략론과 동현사략은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서(序), 발(跋), 지(誌), 기(記) 등은 문학사뿐만 아니라 의약, 인쇄술, 천문, 지리, 학교, 교육, 과거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훌륭한 사료가 된다(민족문화추진회, 1979:

7). 본 연구에서는 1674(숙종 즉위년)에 간행된 권주(權儔)의 북각본을 영인한 것을 자료로 하여 민족문화추진회(1979)에서 국역한 「양촌집」을 참고로 하여 대조하면서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먼저 분석대상문헌 안에서 아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 분포를 보면 「익재집」은 시 203편 중에서 5편(2.5%), 산문 54편 중에서 9편(17%)을 관련 자료로, 「목은집」에서는 시 전체 8000여 편 중에서 76편(1.0%), 산문 228편 중에서 6편(2.6%)을 관련 자료로, 그리고 「양촌집」에서는 시 980편 중에서 4편(0.4%), 산문 357편 중에서 12편(3.4%)을 관련 자료로서 총 112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익재집의 총 257 편에서 14편(5.5%)를, 목은집의 총 8228여편 중에서 82편(1.0%)를, 양촌집 총 1337편 중에서 16편(1.2%)의 자료를 아동 및 양육 관련 자료로 추출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자료들을 양육대상인 아동 인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 사례, 양육 관련 사례로 일차로 분류하였다. 그 분포는 총 112개의 관련자료 중에서 익재집에서 14편(12.5%), 목은집에서 82편(73.2%), 양촌집에서 16편(14.3%)이다. 이는 목은집의 내용이 다른 두 문집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각 영역별로 보면 아동 인식에 관한 자료는 38편으로 이중 익재집에서 6편(15.8%), 목은집에서 23편(60.5%), 양촌집에서 9편(23.7%)이 나왔다. 또한 아동의 일상생활상에 관한 자료는 총 22개로서 익재집에서 2편(9.5%), 목은집에서 19편(86.4%), 양촌집에서 1편(4.5%)가 나왔다. 양육관련 자료는 총 52편 중에서 익재집에서 6편(11.5%), 목은집에서 40편(76.9%), 양촌집에서 6편(11.5%)가 나왔다.

이렇게 분류한 연후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았다. 우선, 아동에 대한 개념화 당시의 아동에 대한 인식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각 하위 영역의 내용은 ① 아동의 생득적 성질에 관한 인식인 아동 본성에 대한 개념, ② 발달과 특정 연령시기에 대한 인식에 관한 아동 발달에 대한 개념, ③ 아동의 일반적 성질과 아동에게 기대하는 바람직한 특성에 관한 아동 특성에 대한 개념 등이다. 그리고 아동의 일상생활은 아동의 일상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2개

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은 ① 가정에서 아동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일이나, 세시풍속 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아동이 수행하는 일에 관한 가내 과업 영역, ② 장난하고 즐겁게 노는 유희를 위한 행위인 놀이 영역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III. 문집에 나타난 아동 관련 내용

#### 1. 아동에 대한 개념화

고려 말에 저술된 문집인 익재집, 목은집, 양촌집에 나타난 아동 관련 내용에서 당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들 인식을 아동 본성, 아동 발달, 아동 특성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 본성에 대한 개념

먼저 아동의 생득적 측면인 아동본성에 대한 당시의 개념을 나타내는 사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稟賦由來不可移(牧隱詩藁 卷 10 卽事)
  - ② 大癡頻觸物 小點乍知機 揔是天然處 還如聖者時...愧我迷眞性 栖栖已老衰(牧隱詩藁 卷 12 觀兒戲)
  - ③ 小童提携翟尾帚 淨掃房中無點塵 渠心純一政無雜 不學而能知是真(牧隱詩藁 卷 26 小童)
  - ④ 自貽哲命誠難必 稟賦由來萬不齊(牧隱詩藁 卷 27 晨興)
  - ⑤ 夫人之受是氣以生也 乾健坤順而已矣 分而言之 則水火木金土而已矣 求其陽奇陰 耦 陽變陰化之原 則歸於無極之眞而已矣...在天則渾然而已 發風動雷之前也 在人 則寂然而已 應事接物之前也 發風動雷而渾然者無小變 則應事接物而寂然者當如何哉 譬之鏡 妍媸在手物 而鏡則無迹...是知人之生既眞矣 惟大人者不失之 故能 爲大人耳 非大人之從外得也(牧隱文藁 卷 3 養眞齋記)
  - ⑥ 余惟人性之善也 猶水性之清也 性本善而惡生者 欲誘之也 水本清而濁見者 穢汙之也 去其惡而存其善 則人性之復其初也 激其濁而揚其清 則水性之得其常也(陽村先生文集 卷 11 記類 古澗記)
- ①에서와 같이 이색은 '타고난 바탕은 본래 바뀔 수

없는 것' 이라 하였고, ②는 아이들의 장난을 지켜보다가 '어리석은 놈은 늘 물건에 부딪치고 좀 약은 놈은 언뜻 기미를 알아차리니, 이게 모두 천연스러운 곳이니, 성자(聖者)의 시절과도 같다' 라고 하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워라 나는 본성(眞性)을 못 찾고 세상 연연해하며 이미 노쇠해졌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어리석거나 영리한 것은 모두 천연(天然)<sup>3)</sup>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갖춘 것으로서 보고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갖춘 본성을 못 찾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은 '아이가 꿩 꼬리의 빛자루를 들고 방 안을 깨끗이 쓸어 먼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보고 '그의 마음이 순일하여 잡념이 없어서이니 안 배우고도 능히 하는 것이 바로 진이로다' 라 하여 아이를 순일(純一)하고 잡념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며 이것을 진(眞)의 상태로 보고 있다. ④에서는 '스스로 철명(哲命) 받긴 진정한 기필코 어려우며, 품부(稟賦) 받음은 예로부터 제각기 다르다' 하여 타고난 성품이 다르다고 개념화하고 있다.

또한 ⑤는 앞서서 나온 본성(眞性)의 개념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⑤에서 '대저 사람은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생명을 영위하는데 그것은 바로 강건한 건(乾) 즉 양의 기운과 유순한 곤(坤) 즉 음의 기운이요,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한다면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 즉 오행의 기운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양기음우(陽奇陰耦)와 양변음화(陽變陰化)의 근원을 찾아본다면 무극의 진(眞)으로 귀결된다' 고 하며 진(眞)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부연해서 '그것이 하늘에 있어서는 혼연(渾然)할 따름이니, 이는 바람이 불거나 우레가 치기 전의 그것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연할 따름이니 이는 사물을 응접하기 이전의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바람이 불고 우레가 치더라도 혼연한 그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비록 사물을 응접한다 할지라도 적연한 그것이 어땠다 하겠는가? 이를 거울에 비유하자면 거울에 비치는 대상인 자신이 아름답거나 추하게 보일 따름이지 정작 거울 자체는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3) 천연(天然)의 의미에 대해서 한한중사전(1992: 281)에 의하면 ①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인공을 가하지 않은 것 ② 태어날 때부터 갖추, 천성, 천품 등으로 풀이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②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본성(眞性)에 대하여 '이를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무극의 진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직 대인(大人)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것을 내부에서 잃지 않기 때문에 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외부로부터 얻어서 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구비하고 있어 내부에서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본성에 대한 개념을 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⑥에서는 '내가 생각하건대 사람의 천성이 선함은 물의 성질이 맑음과 같은 것이다. 천성이 본래 선한 것이지만 악이 생기는 것은 물욕이 유혹하기 때문이다. 물이 본래 맑은 것이지만 흐리게 되는 것은 오물이 더럽혀서이다. 그 악을 버리고 그 선을 보존한다면 사람의 성품이 그 시초대로 회복되고, 그 흐린 것을 없애고 그 맑은 것을 솟아나게 하면 물이 본래의 성질이 되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사람의 성품은 주어지는 것으로 물욕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게 본래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 2) 아동 발달에 대한 개념화

아동의 특정 연령 시기에 대한 개념과 발달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故知赤子純一處 宛與智者無少違 抱負時時素乳啼 直與神化爭高低 直從知誘始逐外 欲動情勝方難齊 狼貪羊狠各有態 淫費滔滔天下溪 治容飾貌竟狙詐 赤子之心 誰復稽(牧隱詩藁 卷 15 赤子吟)
- ② 乳養孩提不暫離 純真私欲未萌時(牧隱詩藁 卷 22 紀事)
- ③ 大人赤子初非二 抱病年來鬢似霜(牧隱詩藁 卷 25 吟兒戲)
- ④ 譬之性 湛然不動 純一無雜 而爲五常之全體者也 性吾所當養 儒與釋共無少異焉 牛禪者 戒以絕物欲之或汚其白也 定以拒物欲之或亂其淨也 慧以化物欲而歸于其 純也…其由戒而入于定 由定而發其慧全體大用 純乎白淨 與佛而等(牧隱文藁 卷 6 雲山記)
- ⑤ 本然之善固在也 而人有賢不肖智愚之相去也 何哉

氣質敝之於前 物欲拘之於後 日趨於晦昧之地 否塞沉痾 不可救藥矣(牧隱文藁 卷 10 可明說)

①은 영아기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다. ①에 의하면 '본디 영아의 순일한 곳은 지혜가 있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안기고 엽힌 채로 때때로 젖을 찾아 우는 건 곧바로 신의 조화와 견줄 정도이다' 라고 하여 영아기를 섞임이 없이 순수한 순일의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 한번 외물의 유혹에 빠지면서부터는 충동하는 욕심과 정을 억누르기 어려워 탐욕과 잔인함이 각각 형태를 이루어 음란의 물이 천하 계곡에 도도히 흐르고 겉모양을 꾸미어 끝내는 거짓을 부리나니 갓난아이의 마음을 누가 다시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하여 영아기의 순일한 상태가 외물과 접촉하면서 욕심과 정에 의한 충동으로 원래의 적자지심(赤子之心), 즉 갓난아이의 거짓이 없는 세속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상태(한한중사전, 1992: 1188)를 잃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에서도 역시 영아기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다. ②에 따르면 '젖먹이 아이가 잠시도 어미를 못 떠나나니 순진하여 사육이 전혀 싹트지 않은 때이다' 라 하여 영아기를 순진하고 사육이 싹트지 않은 때로 보고 있다.

한편 ③에서는 태어날 때의 본성을 보존한다면 영아와 어른이 똑같다고 보고 있다. 즉 ③에서 '대인이나 어린애가 처음은 똑같은 것인데' 라고 하여 본성을 보존한다는 면에서 아동과 성인은 같은 것으로서 서구의 아동 발달의 개념에서 아동기를 성인에 비해 미숙하고 불완전한 시기로 보아, 더 발달해야 할 미숙한 단계로 보는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이처럼 아동의 순일한 상태를 이상적으로 보는 인식은 앞서 본 ②에서 '부끄러워라 나는 본성(眞性)을 못 찾고 세상 연연해하며 이미 노쇠해졌다' 고 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아기의 이상적 상태를 올바르게 기르는 원리를 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④에서는 영아기의 본성을 '성(性)이란 동요되는 바가 없이 담연하고 잠스러운 것이 없이 순일하여 오상(五常)의 전체가 되는 것이니, 성(性)을 우리가 마땅히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 유가(儒家)나 불가(佛家) 모두 조금도 다름 바가 없다' 고 하여 본성을 규정하고 그것을 기르는 방법을 유교와 불교의 원리를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우선(牛禪)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戒)를 가지고 물욕을 끊음으로써 혹시라도 그 흰 바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定)을 가지고 물욕을 예방함으로써 혹시라도 그 맑은 바탕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혜(慧)를 가지고 물욕을 변화시킴으로써 순일한 본바탕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며, '계(戒)를 통하여 정(定)으로 들어가고 정을 통하여 혜(慧)를 발휘하게 되면<sup>4)</sup> 성(性)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순일하게 되어 부처가 다름없이 된다' 라고 하여 본성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아동발달의 이상적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상태뿐만 아니라, 발달의 부정적인 상태에 대한 규정도 있다. ⑤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평등하게 아름다운 천성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어질고 못한 사람과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앞에서는 기질이 그 천성을 가리고 뒤에서는 물욕이 천성을 막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흐릿하고 몽롱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 급기야는 꼭 막혀서 고질병으로 굳어진 나머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다' 라고 하여 아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즉 기질<sup>5)</sup>과 물욕이 천성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아동특성에 대한 개념

다음의 문집에 묘사된 아동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아동 특성에 대하여 어떻게 개념화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 ① 嬰孩強聒 專憑慈父之憐(益齋亂藁 卷 8 表 爲公主乞賜稱號陳情表)
- ② 騰蹕癡兒點(牧隱詩藁 卷 5 與鄭清風同賦)
- ③ 寸心如黑漆 狂走似兒童(牧隱詩藁 卷 24 有感)
- ④ 遇坦走狂童(牧隱詩藁 卷 26 出山)
- ⑤ 衆雛起又聒(牧隱詩藁 卷 26 奈何)
- ⑥ 苦遭童稚聒 頓忘君父憂(牧隱詩藁 卷 27 老境)
- ⑦ 童稚聚相喧 聲急忽觸耳 覺來欲相質 烏有與亡是(牧隱詩藁 卷 29 午睡)
- ⑧ 甘受兒童喧(陽村先生文集 卷 2 次韻送騎環道人)
- ⑨ 攘攘可笑群兒癡(益齋亂藁 卷 4 送金海府使鄭尙書國(原得時字)

- ⑩ 悍夫躑躅亦破膽 癡兒塞聽那可及(牧隱詩藁 卷 3 暴雨行)
- ⑪ 索飯有癡童(陽村先生文集 卷 8 詩類 次獨谷贈呂興伯閔公霽詩韻效其體)
- ⑫ 駘稚爭毬兩不降 誰教私欲已盈腔 呼僮製作足渠意 便見中和開六窓 謾向兒曹志不降 服中無物似羊腔 只因啼笑良心見(牧隱詩藁 卷 16 卽事)
- ⑬ 稚子群成隊 嬉游有定方 言語猶未正 喜怒自無常 雨滴工承露 天昏喜入房 只憐迷利害 執刃不知傷(牧隱詩藁 卷 16 卽事)
- ⑭ 索飯啼門意甚真 杜陵詩句爲傳神(牧隱詩藁 卷 22 敬童索飯)
- ⑮ 人情好惡看時異 天性純真發處微 索飯啼時青爛熳 啖瓜行處色愉怡(牧隱詩藁 卷 24 卽事)
- ⑯ 地道真如牝馬貞 承天雨露妙生成 弄璋弄瓦誰輕重 俯仰乾坤日月明(牧隱詩藁 卷 27 紀事)

먼저 문집에서 아동을 묘사한 대목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①에서 ⑧과 같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모습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것은 오로지 인자한 아버지가 어여삐 여김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요란하게 떠든다(強聒)는 특성, ②에서 '날뛰는 건 철없는 애의 재롱이요' 라는 대목에서 날뛰다(騰蹕)는 특성, ③에서 '이내 마음은 칠족같이 캄캄해서 아동들처럼 미쳐 달릴 뿐이다' 는 대목에서 미쳐 날뛰다(狂走)는 특성, ④에서 '넓은 길에선 철없는 애가 내달았다' 는 대목에서 내달다(走狂)는 특성, ⑤에서는 '애들은 일어나서 또 떠들어 대는데' 라는 대목에서 떠든다(起又聒)는 특성, ⑥

- 4) 계(戒)는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 상의 비(非)를 막고 악(惡)을 그치게 하는 것(불교학대사전, 1988: 59)이고, 정(定)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전주(專注)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정신작용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불교학대사전, 1988: 1391), 혜(慧)는 사리(事理)를 분별, 결정하며 의식을 결단하는 작용 또는 사리를 통달하는 작용(불교학대사전, 1988:1685)으로서, 계, 정, 혜 를 삼학(三學)이라 한다.
- 5) 기질의 성은 기(氣)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통합과 막힘(通塞), 치우침과 바름(偏正)의 차별이 생긴다. 이때 통(通)에도 청탁의 차이가 생기고, 정(正)에도 미악(美惡)의 구별이 있는데 이같은 것은 음양과 오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편차(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4, 1991: 528)라 한다.



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등쌀에 문득 군부(君父)에 대한 근심을 잊었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駑)는 특성, ⑦에서 '아이들이 모여들어 서로 떠들면서 악다구니하는 소리가 홀연히 귀에 들려 잠을 깨고 불러다가 혼내려 하였더니 모조리 오유선생이요 무시공일세'는 대목에서 서로 떠들면서 소리를 지르는(聚相喧) 특성, ⑧에서 '아동의 시끄러움 달갑게 여긴다'는 대목에서 시끄럽다(喧)는 특성 등이 언급됐다. 이상의 내용에서 아동은 요란하게 떠들어 시끄럽고, 빠르게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가장 많이 묘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②, ⑨, ⑩, ⑪에 나타난 아동의 어리석음(癡)에 대한 묘사이다. ⑨에서 '못 아이의 어리석음 가소롭다'는 대목에서, ⑩에서 '사나운 자도 크게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철없는 애는 귀를 막지만 방도가 있겠는가'라는 대목에서, ⑪에서 '밥 찾는 어리석은 아이만 있다'는 대목에서 아동 특성으로 어리석다(癡)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⑫부터 ⑯에서는 아동은 기색이나 표현에서 본심을 환히 드러내며, 무상한 가운데에 일정함이 있으며, 여아와 남아에 경중이 없다고 보았다. 먼저, ⑫에서 '철없는 애들 공 하나를 돌이 서로 다룬다. 누가 사육이 벌써 창자에 가득하게 했는가? 하인 불러 만들어서 제 뜻에 만족하게 하니, 화기(和氣)가 얼굴에 가득하다. 부질없이 아이들 서로 버티고 노는 것을 보니 뱃속에 아무 것도 없어 양의 창자와 같다. 울고 웃음을 인하여 본심을 볼 수 있기에'라는 대목에서 어리석음(駑), 누군가가 사육을 채우게 함, 울고 웃는 것에서 본심이 나타남 등의 내용이 묘사되었다. ⑬에서는 '어린 애들이 서로 때를 지어서 즐겁게 놀에 일정한 방향이 있으니, 말하는 것은 아직 바르지 못하고 기뻐하고 성냄은 절로 무상하지만, 비올 땐 낙수물 받는데 공교롭고 어두워지면 기꺼이 방에 들어간다. 다만 가없는 건 이해에 어두워져 칼날에 손 다칠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대목에서 표현도 미숙하고 감정도 무상하나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아동 특성으로 들고 있다.

또한 ⑭에서는 '달라고 문에 우는 뜻 참으로 천진해라 두릉의 시구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대목에서 본심을 표현함을 천진하다 보았고, ⑮에서는 '인정의 호

오는 보는 데 따라 달라지는데 천성의 순진함은 발하는 곳이 은미하다. 밥을 달라고 올 때는 뜻이 천진난만하고 오이 먹으며 다닐 때는 희색이 만면하다'라는 대목에서 본심이 환히 드러내며, 기색이 분명함을 아동의 특성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⑯에서는 '땅의 도는 참으로 빈마의 꿈음과 같아서 하늘의 우로를 받아 신묘하게 생성하니, 아들이건 딸이건 무슨 경중이 있는가? 천지 사이에 해와 달은 똑같이 밝다'라는 표현에서 여아의 특성으로 유순함을 들었고, 아들과 딸에는 경중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집에서 개인의 전기에 나타난 유년 시절에 관한 기술을 중심으로 아동의 이상적 특성은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에서 ⑧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⑨에서 ⑬과 같은 정의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이 나타났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員外辛侯 束髮讀書 敏而好問 揚鑣翰墨之場(益齋亂藁 卷 5 序 送辛員外北上 序<sup>6)</sup>)
- ② 幼穎悟 能自強於學 長益不怠(益齋亂藁 卷 7 碑銘 海東曹溪山 修禪社...慧鑑國 師碑銘并序<sup>7)</sup>)
- ③ 公自幼巖然如成人 既知爲文 已有作者氣(益齋集 墓誌銘 鶴林府院君諱文忠李 公墓誌銘<sup>8)</sup>)
- ④ 公生三歲就學 既受輒成誦(牧隱文藁 卷 17 栗亭先生尹文貞公墓誌銘并序<sup>9)</sup>)
- ⑤ 公幼穎悟 九歲能詩(陽村先生文集 卷 35 東賢事略 崔侍制諱濬<sup>10)</sup>)
- ⑥ 公生而聰慧 稍長知讀書 不事嬉戲 舉止異群兒 識者知其必貴(陽村先生文集 卷 38 碑銘類 有明朝鮮國諱文簡公安公墓碑銘并序<sup>11)</sup>)

6) 원나라를 가는 신원의를 전송하기 위해 쓴 글로서, 문맥에 나타난 바로는 당시에 문관으로 보임.

7) 해감국사(1240-1319)는 고려시대 충선왕과 충숙왕 대의 국사로서 제자가 700여명에 달했으며, 사대부들도 따랐다.

8) 이제현에 대한 묘지명으로서 이색이 찬한 것이 익재집의 부록에 실린 글이다.

9) 윤택(1289-1370)은 고려 공민왕때 문신. 호는 율정, 시호는 문정공.

10) 최해(1287-1340)는 고려 충숙왕 때의 학자, 문신. 호는 줄옹, 예산농은. 최치원의 후손. 당대의 문호로 이 제현과 함께 외국에 까지 문명을 떨쳤다.

- ⑦ 夫人生而聰慧 長於典訓 率所言動 必循禮則(陽村先生文集 卷 40 墓誌 有明朝 鮮國贈長韓國夫人鄭氏墓誌銘并序<sup>12)</sup>)
- ⑧ 幼與群兒戲 聚瓦石爲塔廟 休則面壁 若有思念 形貌端嚴 性又慈祥 故親戚目爲小 彌陀(益齋亂藁 卷 7 碑銘 有元高麗國曹溪宗...寶鑑國師<sup>13)</sup>碑銘并序)
- ⑨ 先生生而狀貌魁偉 稍長知讀書 舉止如老成(牧隱文藁 卷15 諡文忠公樞隱先生李公墓誌銘并序<sup>14)</sup>)
- ⑩ 公天性恭儉 自幼盥洗不費水(陽村先生文集 卷 35 東賢事略 許中贊諱洪<sup>15)</sup>)
- ⑪ 自幼好潔 每更衣必盥手(陽村先生文集 卷 35 東賢事略 洪中贊諱子藩<sup>16)</sup>)
- ⑫ 是汝慈仁護生之道 已現於襁褓之日矣(陽村先生文集 卷 37 碑銘類 有明朝 鮮國 普覺國師碑銘并序<sup>17)</sup>)

①에서는 '원의 신후는 어릴 때부터 글을 배우되 민첩하고 문기를 좋아하여 문장을 다루는 곳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대목에서 이상적 특성으로 배움에 민첩하고(敏), 문기를 좋아한다(好問)는 특성이 나타났다. ②에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하여 능히 스스로 학문에 힘쓰되 장성할수록 더욱 게으름 없이 하였다'는 대목에서 총명하고 영리하고(穎悟), 스스로 배움에 힘썼다(自強於學)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③에서는 '공은 어릴 때부터 뛰어나게 영리하여 성인과 같았고, 글을 지을 줄 알고부터는 이미 작가의 기풍이 있었다'는 대목에서 영리하여 성인과 같다(巖然如成人)는 점이 언급되었다. ④에서는 '공은 태어나서 3세 되던 해에 벌써 학업을 시작하였는데, 한 번 배우면 곧바로 암송을 하였다'는 대목에서 배우면 바로 암송한다(授輒成誦)는 점을 들고 있다. ⑤에서는 '공은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9세에 시를 지었다'는 대목에서 총명함(穎悟)이 지적되었고, ⑥에서 '공은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가 있더니 차츰 자라면서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며 장난하며 노는 것을 일삼지 않고 행동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는 대목에서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다(聰慧)는 특성이 언급되었다. ⑦은 성별이 여성인 경우로 '부인은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롭고, 법도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말하고 행동함을 반드시 예법에 따랐다'는 대목에서 총명하고 지혜롭다(聰慧)는 특성이 나타났다.

그밖에 정의적(情意的) 특성이나 신체적 특성에 관한 내용도 나타났다. ⑧는 '어려서 여러 아이들과 놀 적에 기와조각과 돌을 모아 탑과 묘를 만들었고, 실 때는 벽을 향하고 앉아 무엇을 생각하는 것같이 하였으며, 용모가 단정 엄숙하고, 성격이 또한 자애 다정하였다'는 대목에서 신체적 특성으로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함(形貌端嚴), 정의적 특성으로는 성격이 자애롭고 다정함(性又慈祥)이 언급되었다. ⑨에서는 '선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위동스러웠으며, 조금 커서 글을 읽을 줄 알면서부터는 행동거지가 노성한 사람과 같았다'라는 대목에서 신체적 특성으로 신체가 크고 건장함(貌魁偉)과 행동거지의 어른스러움(舉止如老成)을 들고 있다.

⑩은 '공은 천성이 공손하고 검소하여 어려서부터 세숫물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정의적으로 공손(恭), 검소(儉, 盥洗不費水)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 ⑪에서는 '어려서부터 깨끗함을 좋아하여 옷을 바꿔 입을 때마다 반드시 손을 씻었다'는 대목에서 깨끗함(好潔, 每更衣必盥手)을 좋아하는 정의적 특성이 나타났다. ⑫에서는 '너의 살리기 좋아하는 인자한 도의는 이미 강보에 있을 때부터 나타난 것이다'는 대목에서 인자함(慈仁護生)이 정의적 특성으로 언급되었다.

## 2. 아동의 일상생활

고려 말의 아동 일상생활의 모습을 일상 활동이나 세시풍속일과 같은 일년 중 특별한 때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가내과업과 아동의 일상에서 중심이 되는 활동인 놀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1) 안종원(1324-1394)은 고려 말기의 문신. 호는 쌍창당, 시호는 문간공.
- 12) 부인 정씨는 고려 문신인 정을보(시호 문량공)의 딸로서 박가흥의 아내이고 그의 아들인 박석명의 청으로 찬하게 됨.
- 13) 보감국사(1250-1322)는 승과에 급제, 출세를 단념하고 일연을 따라 공부하여 그 자리를 물려받고 강석을 열었다. 충렬왕때 대선사, 충숙왕때 왕사가 되었다.
- 14) 이인복(1308-1374)은 고려 말기의 문신. 호는 초은, 시호는 문충공이다.
- 15) 허공(1233-1291)은 고려시대 문신. 시호는 문경공.
- 16) 홍자번(1237-1306). 고려의 문신. 시호는 충정공.
- 17) 보각국사(1320-1392)는 대선사 계승에게서 배우고 승려가 되어 꼭내외의 경전을 익혔다. 우왕때 국사가 됨.

## 1) 아동의 가내과업

고려말 문집에 기술된 아동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상적인 활동과 집에서 수행하는 과업, 그리고 의례에서의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에서 ⑥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던 가내과업이며, ⑦에서 ⑩은 세시풍속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 ① 最憐稚女無愁思 手剪柔桑學饅蠶(益齋亂藁 卷第 3 詩 偶成)
- ② 穉子牽衣如紱舊(牧隱詩藁 卷 4 還家)
- ③ 老妻視甘旨 駭稚嬌語音 亦足慰朝夕 所以寬我心(牧隱詩藁 卷 4 到家)
- ④ 小兒牽牛將出欄 大兒牧馬能縱靶(牧隱詩藁 卷 14 連州歌)
- ⑤ 閨中小女指針線 綉出天吳十倍精(牧隱詩藁 卷 18 卽事)
- ⑥ 呼兒掃地奠水漿(陽村先生文集 卷 4 詩 邀東谷韻)
- ⑦ 踏青携幼醉開顏(牧隱詩藁 卷 30 小憩迎福亭西峯)
- ⑧ 少年今夜喜相過…自愧病餘猶健在 呼兒扶策上山坡…兒童燒栗進金丸(牧隱詩藁 卷 6 中秋)
- ⑨ 歲闌今夜是庚申 共說三尸事最神 瞪視莫教過海眼 天庭咫尺玉皇宸 兒女無知最可憐 猶知頭上有蒼天 明明不待三尸報 休把微勞欲蓋愆(牧隱詩藁 卷 6 十二月十六日庚申是夜兒女達旦不睡)
- ⑩ 九重除夕供儼禮 振子傳呼群不祥(牧隱詩藁 卷 13 絕句)
- ⑪ 年年除夕喜驅儼 雜坐兒童笑語譁(牧隱詩藁 卷 2 除夜)

①에서는 '귀여워라 어린 딸 시름없이 어린 뽕잎 썰어 누에먹이기를 배운다'에서 여아의 가내과업으로서 누에치기를 배우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②에서는 '어린 애는 옷을 끌며 옛정을 떠는 듯하다'와 ③에서 '아내는 맛있는 음식 만들고 어린애는 말소리가 예쁘기도 하다. 이 또한 나날이 위로가 되니 이것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표현에서, 집에서 아동들이 부모를 향한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④에서는 '작은 애는 소 끌고서 우리 밖으로 나오고 큰 아이는 말을 먹일 제 고삐를 놓는다'는 표현에서 남아가 집에서 담당했던 가내 과업으로서 가축을 돌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에서는 '규중의 소녀가 바늘과 실을 손에 쥐고서 천오를 수놓으니 열 배나 정밀해졌다'는 내용에서 수놓기가 여아의 가내과업으로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⑥에서는 '아이 불러 땅을 쓸고 얼음을 드리게 한다'는 내용에서 마당을 쓸고 물건을 가져오는 등의 일상적인 심부름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시풍속 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의 모습들도 문집에 나타났다. ⑦은 '답청하며 아이 데리고 술 취해 얼굴을 뿔었다'라는 내용으로, 답청(踏靑)이란 음력 삼월 초사흘날의 삼진날<sup>18)</sup>에 행하던 풍습으로, 이날 들판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새 풀을 밟으며 봄을 즐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11, 1991: 398-399). 따라서 ⑦을 통해서 아동이 집안 어른과 함께 들판에 나가 답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⑧에서는 '소년들 오늘 밤엔 서로 오가기 좋아하고…스스로 부끄러워라 앓고 나서도 견재하니, 아이 불러 부축을 받으며 산언덕을 오른다…아이가 밤을 구워 알맹이를 으깨어 준다'는 내용으로 중추절의 모습으로 소년들이 이날 밤에 활발하게 오고가는 모습과, 병석에서 일어난 어른을 부축하여 산언덕에 오르는 모습, 밤을 구워 먹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⑨는 '저무는 해 오늘 밤이 바로 경신일인데 삼시의 일을 가장 신기하다고 모두 말한다. 건성으로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 지척이 바로 옥황상제의 천궁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녀가 가장 가련하다 그래도 머리 위에 하늘이 있음을 안다. 하늘은 삼시충이 고하길 기다리지 않나니 작은 노력으로 허물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여 12월 경신일에 여아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다. 이것은 경신신앙(庚申信仰)으로 경신일에 밤을 새우는 도교신앙으로 60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이 되면 사람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삼시충(三尸蟲)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몸 밖으

18) 이날 남자 아이들은 물이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논다. 여자아이들은 물풀을 뜯어서 대나무쪽에다 풀끝을 실로 매고, 머리를 땅아 가느다란 나무로 쪽을 찌고 형겔조각으로 대쪽에다 노랑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혀 각시 모양을 하고, 요, 이불, 베개, 병풍을 차려 놓고 각시놀음을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1991: 399).

로 빠져 나가 상제(上帝)에게 그 동안의 죄과를 낱알이 고해바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여겨 이를 막아 천수를 다하려는 도교의 장생법의 하나로서, 고려에서는 일반적 풍습으로서 경신일이 올 때마다 놀면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1991: 11-12). 이렇듯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유아도 역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⑩에서는 '대궐에서는 설달 그믐날에 나례를 베풀어 아동들이 전해 외쳐서 불상(不祥)을 물리친다'고 하여 나례와 관련된 모습을 기술한 내용이다. 나례(儺禮)는 음력 설달 그믐날 민가와 궁중에서 묵은해의 나쁜 것을 몰아내기 위하여 벌이던 의식<sup>19)</sup>이다. 궁중에서 나례의 식에서 행하던 진자(眞子)들은 대개 12세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1: 181-182)고 한다. ⑪은 '해마다 제야엔 역귀 몰아내기 좋아하여 아동과 섞여 담소가 떠들썩했다'에서 그해의 설달 그믐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설달 그믐날 제야(除夜)에 역귀를 몰아내는 풍습을 아동도 함께 섞여서 참여했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신양재, 1994c)에서도 제야에 행해졌던 풍속이 확인되었다. 제석의 수세(守歲)라는 풍속에 관한 기록이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제석(除夕)에 온 집안에 등불을 켜 놓았는데 외양간, 변소에까지도 각각 하나의 등잔을 켜놓고 밤새도록 자지 않았는데, 숙실에 의하면 제야에 가면 두 눈썹에 센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를 꺼리게 되는데 혹 자는 애가 있으면 다른 애가 쌀가루를 반죽하여 발라주고 깨워 거울을 보라고 하면서 웃는다' 20)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수세(守歲)의 풍속에 대해선 앞서 제시한 12월의 경신일 풍속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민속의 세계 5, 2001: 255).

## 2) 놀이

문집에 나타난 아동이 놀이하는 모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脫却春衣掛一肩 呼朋去入菜花田 東馳西走追蝴蝶  
昨日嬉遊向宛然(益齋亂藁 卷 4 小樂府)
- ② 剪來黃葉似金錢 止得兒啼最得權 誰道阿婆多狡獪

五觀此策却天然 聖人立政皆因下 稚子無知必有先  
看取巖巖新氣像 只因當日解三遷(牧隱詩藁 卷 6 記舊作)

- ③ 假面弄餘童稚\*1(牧隱詩藁 卷 7 卽事)
  - ④ 歲杪庚申徹夜喧 管絃燈火醉昏昏 圍爐兒子擣蒲戲  
白髮衰翁妄自尊(牧隱詩藁 卷 13 廿二日庚申移寓  
妙覺洞權判閣家)
  - ⑤ 教子吹簫騎竹馬(牧隱詩藁 卷 17 遣興)
  - ⑥ 駢稚聲音澁 還能弄肚腸 雖然親筆墨 只是污衣裳  
(牧隱詩藁 卷 17 敬侯弄筆墨)
  - ⑦ 日午羣童赤不衣 相迫環走似牝魔 人情好惡看時異  
天性純真發處微 索飯啼時情爛熳 啖瓜行處色愉怡  
(牧隱詩藁 卷 24 卽事)
  - ⑧ 竹馬驕騰欲上堂 又還環際更彷徨 忽然馳向東山去  
梨栗從他乞得嘗 美質真來并物欲 良知發處卽綱常  
大人赤子初非二 抱病年來鬢似霜(牧隱詩藁 卷 25  
吟兒戲)
  - ⑨ 兩兒相唱和 俚語似街童 樂矣方怡悅 俄而■ ■ 攻  
凌晨出戶外 冒雨走庭中 數數求 梨栗 牽衣向祖翁  
(牧隱詩藁 卷 26 冬雨)
  - ⑩ 時見兒孫共鬪鷄(牧隱詩藁 卷 28 有感)
  - ⑪ 那知豪俠兒 挾彈張羅羅(牧隱詩藁 卷 34 群雀)
- ①에서는 '봄옷을 벗어서 어깨에 걸치고 친구를 불러  
채마밭에 들어가, 동서로 쫓아가며 나비를 잡던 일들이

19) 설달 그믐날에 각 가정에서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을 하며, 자정에는 마당에 불을 피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데, 이것은 집안에 있는 잡귀, 사귀(邪鬼)를 모조리 몰아내고 정(淨)하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궁중에서는 벽사(辟邪)를 위하여 나례의식을 행했다. 우리나라 궁중의 나례의식은 고려 중종 6년 무렵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본다. 12월에 대나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12세에서 16세 이하의 사람을 뽑아 진자로 삼아 이들에게 가면을 씌우고 고습(袴褶: 바지 위에 덧입히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騎服)을 입힌다. 24인이 1대(隊)가 되어 6인을 한 줄로 하여 대개 2대가 거행하였다. 이것은 궁이 정(淨)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정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한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사전 5, 1991: 181).

20) 渾舍張燈以至廢 瀾 各點一盞 達夜不睡以守歲 俗云除夜睡雙眉白 小兒甚憚之 或睡 他兒以米粉抹之 擾使對鏡 以爲戲笑(京都雜志 除夕)

어젯밤 놀이같이 완연하다' 라는 내용에서 봄에 채소 꽃이 피어있는 밭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노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②에서는 '누런 나뭇잎 베어서 금전같이 만들면 아이 울음 그치는데 가장 유력하거늘 아이 엄마가 교활하다 그 누가 말을 했나 내 보기엔 이 꾀가 도리어 자연스럽다' 라고 하여, 아이의 엄마가 금전과 비슷한 빛깔을 한 누런 나뭇잎을 이용하여 그것을 금전인 양하여 아이와 함께 놀아주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자연물을 이용한 가상놀이에 의해서 아이에게 화폐에 대한 이해와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화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가면 쓰고 장난하는 아이들은 떠들썩하다' 는 내용에서 아동들이 가면을 사용하여 가상놀이를 했음을 알 수가 있다. ④에서는 '세밀 경신일에 밤새도록 떠들고, 관현악과 등불 아래 취하여 정신이 없다. 아이들이 화롯가에서 옷놀이<sup>21)</sup>를 하는데 백발의 늙은이는 스스로 늙은 체 한다' 라 하여, 경신수세(庚申守歲)를 위해 어른들은 향연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아동들은 옷놀이를 하면서 밤늦게 까지 놀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옷놀이는 나무 막대기 넷을 가지고 노는 놀이로서, 옷놀이가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 고려로 보는 입장이 있다<sup>22)</sup>. 여기 목은집에서도 그 예가 확인되고 있고, 아동들도 옷놀이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⑤에서는 '아이에겐 파 잎 붙여 죽마를 타게 하다' 라는 내용에서 그 당시 아이들이 파 잎으로 소리를 내며 즐겼고, 죽마놀이<sup>23)</sup>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죽마놀이는 대나무말(竹馬)을 만들어 이를 타고 뛰노는 남자아이 놀이로, 긴 막대기나 마당비 따위를 두 다리 사이에 끼워 올라타고 왔다 갔다 하며 놀기도 한다. 목마인 경우에는 아이의 키보다 조금 긴 참나무 아랫부분에 나무토막을 붙여 매어서 발받침대로 삼는데 같은 것을 두 개 만들어 나무토막 위에 양발을 올려놓고서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 팔을 굽히거나 펴서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하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걸음걸이의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발받침을 여러 곳에 붙인 것을 탈 경우에는 갑자기 키가 커진 듯 하여 각별한 재미를 느끼며, 돌이나 아니면 편을 갈라서 죽마를 타고 일정한 지점까지 빨리 갔다 오기를 겨루면서 논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1991: 901)고 한다.

⑥에서는 '밭도 잘 못하는 어리석은 아이가 속마음을 표현할 줄을 아는데, 비록 필목을 가까이는 하지만 고작 제 옷만 더럽힐 뿐이다' 는 부분에서 유아가 필목으로 장난을 하다가 옷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유아가 낫익은 일상적인 물건을 가지고 주변의 사물에 대한 탐색놀이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⑦에서는 '한 낮에 아이들이 옷을 안 입고 발가벗은 채 서로 쫓아 빙빙 돌며 팔로 지휘하는 것 같다' 라는 내용에서 더운 여름의 한 낮에 옷을 벗고서 서로 쫓아다니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으로, 이런 정경은 지금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한 여름에 매우 더운 때에는 옷을 입히지 않고 시원하게 해주어, 체온조절 기능이 아직 미숙한 유아가 더위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여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양육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⑧은 '죽마를 걸터타고 당으로 올라오려다 또 뜰가로 돌아가서 다시 방황하더니 갑자기 죽마를 달려 동산으로 가서는 그 곳에서 배와 밥을 얻어서 먹는다' 라는 내용에서 기운차게 죽마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상당히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서 죽마놀이가 일상적인 놀이 중에 하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⑨에서는 '두 아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 상스런 말은 무식배와 똑같은데, 즐거워서 한창 서로 기뻐하다간 이윽고 서로 또 공격을 한다. 맑은 새벽부터 문을 열

21) 본문에 저포(樗蒲)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포는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놀이로서 원래 중국의 놀이이나, 이 놀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옷놀이 방법과 비슷하여 옷놀이를 나타내는 이름인 유(紐, 紐, 流, 由), 옷(遊齒), 사희(四戲) 등과 저포(樗蒲)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1: 407). 이색의 <목은시고>의 권 35에 '저포시'는 옷놀이를 읊은 것으로 보아 여가서도 옷놀이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22) 이익(李穡)의 『성호사설』의 사희조(柶戲條)에서 옷놀이를 고려의 유숙으로 보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1991: 362).

23) 이 놀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중국의 잠화유서(潛確類書)에 당나라 때 덕연(德延)이 아동을 위하여 고안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양 삼국에서 오랜 옛날부터 아동들이 즐기던 놀이로서 죽마지우(竹馬之友)라는 말은 바로 이 놀이에서 나온 말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1991: 910).

고 나가서 비를 맞으며 마당을 쏘다니다가 자주자주 배랑 대추랑 달라면서 할아버지의 옷을 끌어당긴다'는 표현에서 아동들이 특정한 놀이의 종류는 아니나 서로 어울려서 몰려다니면서 노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㉑은 '아들 손자들 닭싸움 놀이 가끔씩 바라본다'라는 내용으로, 아동들이 닭싸움 놀이를 했음을 알 수 있다. ㉒에서는 '하지만 어찌 알랴 짓궂은 동네 아이들이 새총 손에 쥐고 그물을 벌여 놓은 줄을'이라는 내용에서 아이들이 새총과 그물을 가지고 참새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양육의 전통을 규명하기 위해 고려시대의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분석문헌은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 저술된 문헌인 익재집, 목은집, 양촌집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는 성리학이 수용되어 본격적으로 확립되면서 지배적이던 불교적 이념에서 점점 벗어나고, 정치적으로는 왕조가 바뀌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는 역사적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분석은 고려에서 조선사회로 이어지는 정치, 사회적 변화가 일상생활수준에서 행해지는 아동양육에 어떻게 반영되어 아동양육의 전통을 형성해 가는가의 역사적 과정을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당시 문헌에 나타난 아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아동에 대한 개념화

우선, 고려 말의 문집에 따르면 아동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태어날 때에는 순일하고 잡념이 없는 순수하고 선한 것으로서, 이후의 물욕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도록 본성을 타고난 상태대로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었다.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 아동의 소질이나 품성 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으로 이후의 모습도 생득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결과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고려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이념과 방법은 유학에 두고 있으나 생활의식의

구석구석에 불교가 영향을 주어 의식세계에 넓은 기반을 이루고 있었고(허홍식, 1986: 11), 새로 수용된 성리학<sup>24)</sup> 역시 근본 원리에 있어서는 불교와 상당히 유사하였기 때문에 여겨진다.

주자는 인성을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나누고 본연의 성은 순선무악하나 현실에 있어서 언제나 기질(육체) 가운데 있어야 하므로, 이 기질 여하에 따라서 기질의 성이 되면서 선악의 구별이 생기게 되며, 경에 거하여(居敬) 기질의 성에 생기는 인욕을 끊고 외부의 유혹을 물리쳐 마음을 항상 조용히 하여 본연지성을 회복해야 한다(손인수, 1993: 208-209)고 하였다. 그런데 고려 중기에 당시의 불교계를 선종의 입장에서 통합하여 조계종(曹溪宗)을 열어 심성에 대한 논의를 깊이 하였던 지눌(知訥: 1158-1210)은 존재의 본체를 진심(眞心)로 보았으며, 그 자체의 빛에 의하여 밝게 인식하고 그 진심(眞心)의 빛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을 사상적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본래 면목인 우리의 마음은 원래 고요하며 맑으며 동시에 온통 밝아 모든 것을 밝게 비추어 아는, 즉 공적영지(空寂靈知)한 것으로, 이러한 인간 각자의 본래의 모습(本來面目)인 자심(自心)을 그 자체의 빛으로 조명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바람직한 인간형성의 중심으로 잡고 있다(박선영, 1983: 193-195). 이렇듯 당시의 지배적인 불교사상에서 바람직한 인간형성과정을 본래면목(本來面目)을 회복시켜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인식 기반은 태어난 처음의 본성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성리학적 이념을 수용하는데 인식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색도 불교의 대승교의 설과 성리학이 궁극에 이르러서는 다름이 없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청정심법(淸淨心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불(儒佛)이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성(性)의 실현을 유교에서는 양성(養性)이라 말하고 불교에서는 견성(見性)이라

24) 원래 송대의 성리학은 중국 고대의 유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육조(六朝)이래 당대까지 점차 발달해서 사상계의 주도권을 갖게 된 불교와 한족의 고유한 도가 사상을 기저로 하여 그 원리들을 깊이 융합함으로써 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성리학을 대성한 주자도 불문에 있다가 유문으로 전환한 까닭에 그의 성리학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편, 1987: 65)으로 본다.

고 말하고 있으나 동일한 의미이며, 그 양성 또는 견성의 결과로 이르는 경지를 유교에서는 정정(定靜), 불교에서는 적연(寂然)이라 말하여 성리학의 주일무적(主一無適), 경(敬)과 같다(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편, 1987: 60).

이러한 논의는 고려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변동명, 1995: 3)에서 고려에서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무인 정권의 시기에 선종(禪宗) 계통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심성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가 작용하여 정치적 입장과는 달리 불교와 성리학 수용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평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비록 고려 말의 불교의 폐단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였으나, 불교와 성리학은 근본 원리에서는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아동 본성에 대한 개념이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확립된 이후와 이전이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리학의 본격적 수용이 아동의 본성을 보는 인식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불교적 이해와 성리학적 이해가 병존하면서 융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대한 개념에서도 아동본성과 비슷한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 시기 중에서 특히 영아기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다.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 영아기의 단계를 기가 올곧고 전일한 상태로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영아를 섞임이 없는 순수한 순일(純一)의 상태로 개념화하였고, 순진하여 사욕이 전혀 싹트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영아의 이런 상태는 지혜가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 태어날 때의 상태를 보존한다면 영아와 어른은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화에 기초하여 이상적으로 아동을 기르는 방법은 순일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질과 물욕에 의해 흐려지는 것을 막는 수양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화는 현대 발달심리학에서 인간발달을 하위의 상태에서 상위의 단계로 변화해가는 진화론적 발달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즉 서구의 아동기에 대한 현대의 개념화는 목적론(teleology), 필요성(necessity), 발생론(endogeneity)에 근거하여, 발달과정의 한 단계로서 아동기를 보는 발달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다. 아동기는

어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하고 미숙한 단계로서, 더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과정 중에 있는 한 단계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기에 대한 개념화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요청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Archard, 1993: 33-34). 또한 성인에 대한 아동의 개념화도 현대적 개념은 성인기는 발달의 목표 지점인데 반하여, 아동기는 이러한 성인기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서 성인의 특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아동 고유의 욕구와 흥미를 갖고 있는 단계로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화는 아동의 것은 아동 안에서 찾자는 아동-중심적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Archard, 1993: 36). 이러한 현대의 서구적 개념에 근거한 현재의 아동 양육이나 교육은 역사적 전통을 달리하는 우리의 인식과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유가효, 1995).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익재집과 양촌집에는 아동 본성과 발달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지 못하고 대부분의 자료를 목은집에 근거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고려 말의 아동인식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의 고려에 관한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 보완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집에 묘사된 아동 모습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특성은 떠돌고, 시끄럽고, 빠르게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리석다, 기색이나 표현에서 본심을 환히 드러내며, 무상한 가운데 일정함이 있고, 남아와 여아에는 경중이 없다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어른의 이해관계가 중심인 세상에 대해 아동의 시끄럽고 소란스러움, 어리석음의 특성은 아직 세상의 이해관계에 밝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본심 표현의 솔직함과 일정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에 묘사된 아동의 이미지를 보면, 서양은 기독교적 전통에서 아동을 신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와 같은 순진무구한 존재인 동시에 원죄를 지닌 존재로서 모순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Archard, 1993: 37).

또한 이상적 특성으로는 지적인 특성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특성으로는 총명하고, 영리

하다는 일반적 특성에서 구체적으로는 배움에 빠르고, 문기를 좋아하며, 암송을 잘 한다는 내용이 나타났다. 정의적 특성으로는 자애롭고, 다정하며, 공손하고, 겸소하고, 인자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고, 신체적 특성으로는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신체가 크고 건장하며, 행동거지가 어른스럽다는 내용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사를 분석한 연구(신양재, 1994a)나 전 연구(신양재, 1995c)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공통적으로 이상적 특성으로서 지적 특성을 많이 들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어려서부터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Harkness와 Super의 연구(1992)에서 아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민속이론(ethnotheory) 분석에서 부모의 개념들은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상황 안에 매여 있음을 밝혀냈는데, 예를 들어 케냐 부모는 아동의 영리함을 집안일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감이 있게 하는가에 두는 반면, 미국 부모는 기억력, 단어나 철자에 대한 흥미를 기준으로 영리함을 보았다. 아동 특성에 대한 기대는 그 문화에서 기대하는 문화적 과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지적특성에 대한 강조는 당시의 배움에 대한 태도와 연관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성리학 이념체제에서는 배움이 자신의 수양뿐만 아니라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서 경제제민(經世濟民)에 이르는 통로(변동명, 1995: 74-75)이므로 배움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성으로 지적 특성이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리학 이념과 우리나라의 교육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강창동, 2001)에서도 성리학의 이념 내에는 교육의 당위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저에 흐르고 있으면서 교육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의적 특성은 친사회적 특성이나 집단에 동조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집단 이해에 기여하는 가치를 지향(Schwartz & Bilsky, 1990)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근거 자료가 소수인데다가, 주로 고려의 문신이나 왕사나 국사를 지낸 지배 계층에 대한 기술이므로, 당시 아동의 이상적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에 다양한 자료를 통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 2. 아동의 일상생활

첫째, 문집에 나타난 아동의 일상 과업으로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위안과 편안함을 주는 정서적 역할을 하며 일상적인 심부름을 하고, 여아의 경우 누에치기, 수놓기, 남아의 경우는 가축 돌보기를 한다. 이러한 가내 과업을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면서 성인기에 행할 경제활동에 대한 예기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시풍속 행사에 참여하여 어른과 함께 삼짋날에 들에 나가 답청에 참여하고, 중추절을 활발하게 즐기며, 경신수세 풍습에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세시풍습을 익히며, 설날 그림날에 다양한 벽사(辟邪) 행사에 어른들과 함께 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습은 아동의 생활이 성인 세계와 분리되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문화화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다음의 역할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도 확인되어 아동의 일상생활이 성인생활과 분리, 단절되지 않아 관찰이나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장차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체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nedict의 문화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이론적 개념에서 볼 때,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습은 연령구분에 의한 엄격한 단절이나 제재가 없이 비교적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경험들이 제공됨으로서 발달과정상에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Muuss, 1999: 179).

둘째, 문집에 나타난 아동 놀이는 채소밭에서 나비 쫓아다니며 놀기, 누런 나뭇잎을 금전인 것처럼 하여 노는 가상놀이, 파 잎 불기, 가면놀이, 죽마놀이, 옷놀이, 필목으로 장난하기, 닭싸움, 새총과 그물로 참새잡기, 물러다니며 놀기 등이다. 이는 아동 놀이가 주변 사물에 대한 탐색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자연 속에서 혹은 자연물을 이용한 자유 놀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일상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해주고, 자연물을 이용한 가상놀이를 통해 미래 역할에 대한 연습을 하며,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기술 습득이 놀이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연성, 균형 감각, 민첩성 등의 신체적 능력이 놀이를 통해서 함양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에게 빗갈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나뭇잎을 금전처럼 한 가상놀이는 놀이 재료의 접근성이 높고, 이를 통해 화폐 개념과 교환의 원리 등과 같은 어려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준다 하겠다. 또한 죽마를 가지고 활발하게 노는 모습이 두 번이나 거론 될 정도로 죽마놀이가 일상화 되어 있는데, 이 죽마놀이를 통해서 아동은 신체의 유연성, 균형 감각, 민첩성 등을 기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구(신양재, 1995c)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어, 성인 행동 모방, 자연물과의 친화, 도구제작과 활용 등이 아동 놀이의 특성으로 나타났고 활달하고 표현이 자유스러운 아동의 일상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성리학의 수용으로 인한 사회 이념의 변화, 왕조의 교체 등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진행된 시기에 정치 사회와 같은 거시적 수준이 아닌 일상생활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역사적 과정에서의 사회, 정치적 변화가 일상생활수준에 어떻게 수용되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의 추구는 역사과정에서 형성되어온 문화적 전통의 형성과정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고려에 대한 자료는 극히 적은데다가, 그중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자료는 더욱더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고려 말의 성리학 수용과 함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아동양육이 어떻게 변용, 유지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당시에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의 개인문집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들 문집 자체가 아동양육을 기술한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목은집의 분량이 방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문집보다는 많은 아동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었으나, 자료가 편중되어 분석결과를 고려 말 당시의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된 고려시대의 아동 인식과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아직 다루지 않은 여타의 고려시대 문집이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꾸준히 논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창동(2001). 조선조 성리학 이념과 교육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9(4), 1-18.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1). *한국 민속의 세계 5: 세시풍속·전승놀이*.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상기(1985). *고려시대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영옥 백혜리(2000). 조선시대 아동양육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유아교육학논집*, 4(1), 5-24.
- 김영찬(1982). *생활·문화·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문미옥, 류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215-234.
-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益齋集*. 서울: 솔출판사.
-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牧隱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추진회 편(1979). *陽村集*. 서울: 솔출판사.
- 민족문화추진회 편(2003). *牧隱集* 7·8·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배중호(1988). 성리학의 수용과 그 의의.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백혜리(1999).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아동인식(1). *유아교육연구*, 19(2), 59-76.
- 백혜리(2000).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아동인식(2). *아동학회지*, 20(2), 67-81.
- 백혜리(2001). 조선중기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본 아동 인식. *아동학회지*, 22(2), 205-218.
- 변동명(1995). *고려 후기 성리학수용 연구*. 서울: 일조각.
- 신양재, 김영주(1992). 한국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I)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4), 249-260.
- 신양재(1994a). 고려시대 아동양육 연구: 고려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4), 49-162.
- 신양재(1994b).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난 아동기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5), 125-134.
- 신양재(1994c).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동국세시기·열양세시기·경도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19-228.
- 신양재(1995a).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 자녀훈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1), 155-168.
- 신양재(1995b).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 연령기대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1), 183-195.
- 신양재(1995c). 고려시대 문집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

- 찰(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33-144.
- 신양재(2004a).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 *대한가정학회지*, 42(8), 147-167.
- 신양재(2004b).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II). *대한가정학회지*, 42(11), 17-30.
- 신용국(1997). *전통 사회의 교육(I): 고대와 중세의 교육*.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 한국 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혼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 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유가효(1995). 한국과 미국의 자녀양육 방식의 비교. 조복희 편. *이동발달의 이해*, 366-389. 서울: 교육과학사.
- 윤사순(1987). 고려후기 성리학의 도입과 섭취.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105-127. 서울: 동명사.
- 윤사순(1987). 조선초기 성리학의 전개.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129-153. 서울: 동명사.
- 이가원, 임창순 監修(1982). *漢韓中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 전관웅(1988). *불교학대사전*. 서울: 흥법원.
-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사연구회 편(1987). *교육사상가 평전 1: 한국편*. 서울: 교학연구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홍식(1986). *고려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 Archard, D. (1993). *Children: right & childhood*. New York: Routledge.
- Cole, M. (1998). Culture in development. In M. Woodhead, D. Faulker, & K. Littleton(Eds.), *Cultural worlds of early childhood*, (pp. 11-33). New York: Routledge.
- D'Andrade, R., & Strauss, C. (1992).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now, J. (1988). Children's household work: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5-26.
- Harkness, S., & Super, C. (1992). Parental ethnotheories in action.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c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373-39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ightfoot, C., & Valsiner, J. (1992). Parental belief systems under the influence: Social Guidance of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cultur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ci, & J. J. Goodnow(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393-414). New Jersey: Lawrence
- Muuss, R. E. (1999). *청년발달의 이론(정옥분, 윤중희, 도현심 공역)*. 서울: 양서원.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78-891.
- Schwartzman, H. B. (1978). *Transformations: the anthropology of children's play*. New York: Plenum Press.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uper, C. M., & Harkness, S. (1998). The development of affect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M. Woodhead, D. Faulker, & K. Littleton(Eds.), *Cultural worlds of early childhood*, (pp. 34-47). New York: Routledge.
- Wolfenstein, M. (1955). The fun morality. In M. Mead & M. Wolfenstein(Eds.), *Childhood in contemporary cultures*(pp. 168-17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년 7월 29일 접수, 2005년 10월 21일 채택)